9강 성기 고딕

1교시 샤르트르 성당의 발전 내용으로 살펴본 성기 고딕

▲ 초기고딕에서 성기 고딕으로

성기 고딕은 필립 2세, 루이9세 그다음에 인노첸시오 3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다. 필립 2세와 루이 9세는 왕들이었고 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이었고요. 이들 사이의 정치적 종교적 연합이 이루어져서 6차 십자군 전쟁 등, 기독교의 본격적인 현실적 욕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 군주 정체의 완성했고요.

이 교황 군주 정체는 기독교 중심 사상이 극에 달한 시기이기도 해. 교회사에서 보면 기독교의 권력적 측면이 강해져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시기이기도 했고, 부정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끊임없이 현실세계에 관여하여 지배하고 교황이 나라별 차이를 뛰어넘어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교황이 왕 하나 갈아치우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요. 반대로 왕들은 대관식을 가져야 왕이나 황제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었죠. 대관식이라는 것은 교황청에서 왕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식이야.

그 대관식이 치러지던 성당이 어디냐면 랭스 성당이야. 나중에 성기 고딕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이 랭스 성당인데. 건축적으로도 대표적인 성당이고, 내용적으로 보아도 그 곳에서 대관식이 벌여졌기 때문에.

도시 구도도 보면 [그림 688]처럼 성당이 도시의 한 중심에, 그것도 가능하면 구릉지나 이런 데서 지형상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크기와 높이도 가장 크고 높게 지어졌으며 그래서 멀리서 가장 잘 보이면서 주변에 작은 건물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는 위계성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는 얘기고요. 도시 내에서 보면 [그림692]와 같은 지도 그림이 되고요. 우리가 유럽여행가서 중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를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딕성당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림 693]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드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성기 고딕이 완성이 돼요. 파리를 정치적 중심지로, 랭스와 상을 종교적 중심지로, 샤르트르를 건축적 중심지로 삼아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성기 고딕의 구조적 조건은 읽어서 건물 분석하는 데 참고로 삼도록 하고요.

▲ 고딕적 대형 공간 - 샤르트르 성당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건물들. 샤르트르. 샤르트르는 1194년에 화재 직후 증축이 시작된 부분이 성기 고딕에 해당 돼요. 샤르트르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쉬제르가 노르망디 장인들을 불러 모아 고딕 장인으로 재훈련시켜 탄생한 중심지에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고딕 장인들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샤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 드니-샤르트르로 이어지는 흐름과 누아용에서 랑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흐름으로 프랑스 고딕 건축을 대변할 수 있어요. 전자는 수직성, 고딕다움을 추구한 계열이고 후자는 수평적 비례감, 고전적인 특징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계열이고요. 나중에 가면 전자는 랭스 아미앵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부르주로 이어지지요.

그 다음에 미리 크게 보면, 484페이지 보면 반 샤르트르와 소형화. 그 다음에 일단의 소형화 지역양식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것이 일드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양식이자 국제주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각 지역에 소형 건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딕건축은 저 큰 두 흐름으로 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저 소형화를 추구한 입장들은 샤르트르 건축풍토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기독교의 권력화를 가장 곧이곧대로 건물로 옮긴 경향이 이 수직성을 추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중세 고딕의 이상이 과연,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성경이 참 뜻이 무엇인가. 나보고 성경을 고치라고 한다면 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내용이 많아.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혼선도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서양 내에서도 나중에 종교 개혁이나 카운터 리포메이션 역(逆)종교개혁이라고 하여 기독교 내에서 끊임없는 자정노력이 계속되기도 하는데. 중세시대에도 저런 식으로 있었지요. 우리가 보통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의 힘이 극에 달하고, 르네상스 말기에 보면 기독교의 부패상이 극에 달한 것으로 단순화하여 서양 역사를 배우는데 적어도 건축에 국한시켜 보면 이러한 내부의 반대적인 움직임들도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샤르트르를 먼저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보면 고딕건축의 구조적 발전을 이끈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봐 왔던 뭐 볼트가 6분 볼트에 더블 베이와 싱글 베이의 불일치, 플라잉 버트레스 등 여러 가지 구조를 둘러싼 고민들이 점점 해결되어 가면서 건물이 높아져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구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크게 보면 플라잉 버트레스, 파리 노트르담에 나타났던 플라잉 버트레스를 발전시킨 것이 중요해요. 그 밖에 거기에 따라서 구조적 조건들이 많이 정리되면서 건물에 구체적 결과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커졌어요. 천장부가 37.5m 노트르담보다 많이 높아진 모습이고, 전체 규모를 보더라도 노트르담의 대형화 욕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5랑식-이중복도를 이어받았어요. 평면을 보면 네이브 쪽은 3랑식이고 성가대쪽이 5랑식으로 돼 있죠.

샤르트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아홉 가지이다.
첫째, 천장이 4분 볼트로 정리가 된 것이죠. 6분 볼트에서 4분 볼트로. 4분 볼트이면서 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둥간 거리가 넓어지고 기둥이 가늘어지면서 높이 올라가는 게 4분 볼트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기서는 기둥간 거리가 아직 6.7m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노트르담에 비하여 그렇게 많이 발전한 상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직 발전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샤르트르의 9가지 의미를 보면 초기 고딕과 구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발전이에요. 그런 점 에서는 성기고딕의 문을 연 건물로 얘기가 되는데, 9가지 항목을 보면 전부 중요한 발전내용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샤르트르가 성기 고딕의 완성 건물은 아니고. 이 랭스와 아미앵이 성기고딕의 완성 건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 기둥체계가 싱글 베이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4본 볼트에 싱글 베이면 완전한 일치가 얻어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효과는 아직 기둥 간 거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나의 한계는 아직 더블 베이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잔재는 기둥을 보면 두 종류가 쓰이고 있어요. 완전 더블 베이면 코어기둥의 굵기나 대응 기둥의 개수, 덩치라든가 구조적 작용에 있어 차이가 나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굵기나 개수는 그대로인데 형태에서 두 종류가 쓰이고 있다.

한 종류는 팔각형 코어기둥에 원형 대응기둥. 또 하나는 원형 대응기둥에 팔각형 코어기둥. 이렇게 두 종류가 쓰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 믿겠지만, [그림 721]과 [그림722]를 보면 내 말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림 723]을 보면 기둥열이 서 있는데 두 종류 기둥이 쓰였는데 사진이 작아서...확대 하면 보일 텐데, 보여요? 이런 식의 두 종류의 기둥이 쓰인 것을 봐서는 더블 베이의 잔재가 남아 있단 얘기이고.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장인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은 기록에 없죠. 중세까지는 건축가라는 것이 전문예술가 직업이 아니라 장인이었기 때문에 중세까지는 건축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문예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에 안 남아있는데.

그냥 더블 베이의 잔재 그 이상은 추측하기가 힘든.. 아니면 그냥 조형성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셋째, 4분 볼트와 싱글 베이는 네이브에서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킨 것이야. 이동속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네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탠드의 종착점을 향해 가는 이동속도니까 이것은 선형성의 문제죠. 이게 큰 기둥, 작은 기둥 더블 베이로 있으면 시선이 이리로 뺏긴다는 거예요.

기둥 거리가 좁아도 시선이 뺏기겠지. 그런데 기둥이 높고 싱글 베이로 성큼성큼 걸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선형성은 이를테면 가톨릭 성당의 원형성에 해당되는 것이야. 이것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은 초기 기독교부터 로마네스크 거쳐 계속 나왔던 얘기고.

이것은 종교성, 신앙심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평면 차원에서의 신앙성 문제이지요. 자꾸 수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빛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수직적 차원에서 구조라든가 입면 차원에서의 신앙심 문제이고, 평면 차원에서 사람 눈높이 차원에서의 신앙심 문제는 이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독교의 이상이 강화되어 가는 현상에 대응될 수 있는 건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반면에 이것은 선형성, 사람 눈높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성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수평성은 일단 수직성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이 수평성이 묘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수평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수평성은 물리적 크기와 선형성이라든가 속도감과 같은 한 번 다른 의미로 번안되어서 나타나는 느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직성과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단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크기를 보더라도 물론 건물이 높아야 수직성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주 이런 좁은 공간에 사람이 섰을 때, 사일로라 그러나? 서양 시골가면 소 먹이를 쌓아두는 탑이 있잖아.

이런 것을 사일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느낌이긴 한데, 일부 성격 이상한 건축가들이. (웃음) 그 여물, 풀 자른 것을 쌓아놓고 문 열어서 쓰는, 그 무슨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뭐지? 나 닮은 배우 나오는 영화 있는데 (웃음) 해리슨 포드 나오는.

이게 물론 수직감을 주기는 하고, 이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벌어지면 수직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공간이 큰 것이 오히려 더 수직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묘한 비례감인데, 이런 비례감에 밝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숫자상의 비율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스케일감 문제가 되면, 반드시 수직비율이 높아야만 공간이 수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한 것들이 고딕 성당의 수직성 문제에서 잘 나타나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딕 성당은 기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수직성이 중요한데. 건물이 구조적으로 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일어나고 하면, 건물의 전반적 규모라는 관점에서 이 수평성 문제도 같이 따라다닌단 얘기죠.

그랬을 때 성당들을 죽 다녀보면 기독교의 이상을 상징하는 수직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

거기에 선형성이라든가 속도감 개념을 더하다 보면 수평성이 오히려 수직성을 도울 수 있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역할을 할 수 있단 얘기야. 이런 것들이 고딕성당에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들 중의 하나고. 여기에서도 이미 그런 느낌들이 나타난단 얘기야. 수평성, 이런 것들이 수직성을 보강하면서 역동성이라는 공통적이 느낌이 나타난다는 얘기이죠.

그 다음 넷째, 다발기둥이 정리가 되었다. 다발기둥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었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결이 안 된 것이 [그림 724]를 보면요. 주두를 기준으로 하여 코어기둥이 있고, 이 주두 아래쪽은 대응기둥이 세 개에요.

그런데 주두 위쪽은 대응기둥이 다섯 개. 이것은 같고, 여기도 같은데, 그 옆에 작은 대응기둥들이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 저런 것은 위아래 간은 불일치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기둥이 저렇게 죽 정리가 되면서 다발기둥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특히 코어기둥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코어기둥에서 대응기둥이 여덟 개가 갈라져 나오는 것이 표준형이었어요. 위에는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섯 개라면 뒤쪽의 아일 쪽으로 세 개가 더 있다는 얘기니까 여덟 개 맞고. 주두 아래쪽은 세 개니까 두 개가 빠진 것인데.

이 두 개가 무엇이냐면, 위에 올라가면 저 두 개가 무엇을 바치느냐. 이것이 사선 방향의 볼트를 받치는 거예요. 이것은 구조적 역할에서 하중 받는 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응기둥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결국 사선 방향의 리브를 받는 이 작은 대응 기둥 두 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이것을 제하고 보았을 때, 이런 모양. 그리고 저 속, 여기서는 안 보이는 뒤의 아일 쪽으로 하나가 더 있을 거란 말이죠.

대응 기둥 중에서도 이 네 개의 대응 기둥이 제일 큰 대응 기둥이고. 이것이 이쪽 방향의 아치를 받는 대응 기둥. 이것은 갤러리 층의 아치를 받는 대응 기둥. 이것은 천장의 횡방향 리브를 받는 대응 기둥. 그리고 이것은 아일 천장의 횡방향 리브를 받는 대응 기둥이고요.

여기 작은 것 네 개가 붙는 게 사선 방향을 받는 작은 대응 기둥. 그래서 코어기둥의 이 네 귀퉁이에 대응 기둥을 딱딱 위치시킨 이런 정리된 형태를 필리에 캉토네 pilier cantonée, 네 귀에 대응 기둥이 달린 코어 기둥, 이라고 해요. 캉토네는 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 '네 모서리에 무엇을 붙인, 처리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에요. 이것을 건축 용어로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네이브 월에서 발전이 있었다. 4단 구성, 누아용과 랑에서 나타났던 4단 구성과 노트르담에서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4단 구성의 잔재가 사라지고 3단 구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림 725].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3단 구성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네스크 때 3단 구성이 정착을 했어. 그리고 초기 고딕 때 4단으로 높아졌어. 그리고 성기 고딕 때 다시 3단으로 돌아와. 그런데 로마네스크의 3단 구성과 성기 고딕의 3단 구성의 차이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세 가지야.

첫째, 각각의 높이가 높아져야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단이 문제인데. 둘째 단이 갤러리이면 안 되고, 트리포리엄이어야해. 그다음에 높아진 높이가 어디에 할당이 되었는가가 중요해. 높아진 높이가 천측창에 할당이 되어야해. 왜냐하면 여기는 단겹이니까 여기에서 빛이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면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로마네스크 때는 여기 각각이 전부 낮았다는 얘기이죠. 성기고딕에 와서는 각 층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 둘째 단이 갤러리이면 안 되는 이유는, 갤러리는 볼트 천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가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갤러리 외벽의 창 높이가 낮아지고, 여기서 투과된 빛이 이 좁고 어두운 갤러리 층을 통과하면서 여기 올 때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트리포리엄이 되면, 목조 평천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만큼 가린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빛 투과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갤러리로, 볼트천장으로 했던 이유는 천장 하중을 이 갤러리 천장에서 일정 부분 받아야해.

그리고 외벽으로 옮겨야 하는데. 플라잉 버트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갤러리의 볼트 천장에서 받아야 할 하중을 여기서 받아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볼트 천장 없이 평천장인 트리포리엄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단 구성인 동시에 갤러리가 트리포리엄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플라잉 버트레스가 쓰이면서 가능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고딕구조가 여러 구조적 조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마치 신체상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콩팥이 약하면 기관지가 약하듯이. 이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작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고딕구조는 상당히 한의학적인 생각이야 어떻게 보면. 서양 의학에서는 기관지가 약하면 기관지만 계속 치료해 대는데,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 전체를 보는 거지. 한의학은 오장육부라는 시스템 전체를 보는 것이고, 이 고딕구조의 유기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높아진 높이가 아케이드가 높아진다기보다는 이게 높아지는 것이 좋아. 그래야지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천측창이 높아진 것. 그 숫자가 45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아케이드의 높이는 16.1m, 트리포리엄의 높이는 4.5m, 천측창의 높이는 16.9를 확보했고요. 이것은 [그림725]와 [그림726]을 비교해보아요. 원래는 그림이 나란히 있어야하는데, 아마 출판사에서 편집하다보니까 따로 있게 되었네.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면, 이 [그림 726]은 랑인데, 랑은 천측창 높이가 낮아. 그런데 [그림725] 샤르트르에 오게 되면 천측창 높이가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랑의 천측창은 높이도 낮으려니와 6분 볼트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천측창의 창을 제외한 부분이 벽으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이죠. 그 다음에 이 천측창이 시작되는 지점도 보면, 여기에서 시작이 돼.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하는데, 샤르트르로 가 보면,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4분 볼트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이 여기서 멈춘 것은 같은데, 그 위에 원형창을 하나 뚫어가지고 창 전체 면적이 랑처럼 두 개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넓어졌어. 그러니까 샤르트르의 벽체는 여기 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천측창의 포인티드 아치의 곡면이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가 훨씬 높아. 이게 천측창이 높아진 증거들이란 얘기이죠. 단순히 숫자로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속의 창 구성을 보면 벽체 면적이 줄고 창 면적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454페이지 중간 보면, 천측창이 건물의 전체 골격에서 위 아래로 확장. 그래서 아래로는 천측창이 천장 볼트의 리브가 시작하는 되는 지점보다 훨씬 아래까지 확장, 위로는 볼트 속 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 그래서 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창문 구성 중에 뾰족한 창을 랑셋lancet이라고 부르고 원형 창을 오쿨루스oculus라고 불러. 그래서 오쿨루스가 나중에 극단적으로 장식적으로 발전한 것이, 로즈 윈도 rose window 장미창이에요. 그러니까 장미창보다 오쿨루스가 더 넓은 개념이지.

이런 식의 큰 포인티드 아치를, 작은 포인티드 아치 두 개와 원형창으로 나누었을 때, 원형창은 다 오쿨루스고 그 중에서 이것을 장미 모양으로 복잡하게 분할한 창을 로즈 윈도우라고 해요. [그림 727]에 있는 정도는 아직 로즈 윈도우까지 가지 못한 것이고, 나중에 후기 고딕으로 가서, 496페이지에 있는 것이 로즈 윈도우에요.

여섯째, 플라잉 버트레스의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노트르담과 비교를 해보면, 449페이지에 [그림 715]를 보면 두 번째 2가 노트르담이고 4가 샤르트르에요. 3이 부르주이고. 노트르담을 보면 2층이 갤러리로 쓰였기 때문에, 천장이 내력구조인 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내력구조인 플라잉 버트레스와 한 몸으로 묶이면서 내력구조의 단면적이 상당히 넓어짐과 동시에 플라잉 버트레스의 아치 진공부가 작아졌어.

거기 보면, 네이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랑식이였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갤러리가 있고. 첫 번째 갤러리 보면, 이렇게 한 몸으로 묶이게 된단 얘기에요. 어디인지 찾았어? 그러니까 여기 진공부가 작아진단 얘기에요. 아직까지는 내력구조를 담당하는 단면적이 너무 넓고, 이 진공부가 작아지기 때문에 실내에 채광 효과가 충분히 안 나타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네 번째 샤르트르를 보면 갤러리 천장이 없어. 트리포리엄이기 때문에. 진공부 면적이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라잉 버트레스의 발전 내용들이 455페이지에 나와 있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또 무엇이냐면, 노트르담 보면 플라잉 버트레스가 3단이에요. 그런데 샤르트르에 오게 되면, 그게 갤러리 볼트 천장과 합해지면서 그 옆의 부르주와도 비교해 보아도 부르주는 3단인데 비하여 샤르트르는 2단이에요.

그래서 단 수도 줄어들고. 그러나 한계가 무엇이냐면, 버트레스가 너무 두꺼워. 그리고 두 번째 플라잉 버트레스의 두 번째 아치가 너무 두꺼워. 그래서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뚫었지만 처음부터 얇은 것만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발전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일곱째, 수직성이 증가했다. 노트르담보다 6m 정도 천장이 높아졌어. 그런데 이 37.5라는 숫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기고딕 초기의 장인들에게는 35m가 심리적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음으로써 수직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 구조의 발전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공간감을 얘기했지만, 높이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16.3m의 폭으로 넓어졌고. 그래서 네이브 간의 주간 거리가 넓어져 횡방향의 주간거리가 넓어지면서 그리고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게 같이 작용하면서 공간이 수직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거대해진 것이죠. 이것을 중세적 거대 공간, 고딕다운 거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느 시대나 거대 공간은 있었는데 수평 수직 양 방향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게 중세적 거대 공간의 개념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기독교적 권위를 인간적 욕망으로 표현해 낸 예로 볼 수 있어요. 공간의 수평 확장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요 여덟째로.

그 다음에 아홉째,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인드글라스는 창 면적이 충분히 넓어졌을 때 써야 해요. 건물의 구조 발전으로 건물이 커지고 수평적으로도 넓어지고. 공간이 충분히 거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를 함부로 못써. 이렇게 되면 실내가 너무 어두워지고 오히려 건물을 찌그러뜨리는 효과가 난다고.

그러니까 스테인드글라스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미술요소이긴 하지만, 반면에 이것이 건물이 충분히 커지지 못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건물을 위축시킬 수 있단 얘기에요. 실내 조도도 어둡게 만들고.

샤르트르는 고딕 성당 가운데 스테인드글라스가 가장 많은 성당인데,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구조적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단 얘기이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9강 성기 고딕

2교시 부르주 성당과 고딕의 완성점 랭스 성당

▲ 고딕적 고전성 - 부르주 성당

이 부르주는 아까 얘기했던 고전적 비례감. 그런데 부르주에도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 샤르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구조적 발전의 내용이 일부 나타나고. 이 부르주는 연대는 지금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샤르트르랑 비슷한 연대나 약간 늦은 시기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그런데 이 구조적 발전이 샤르트르에서처럼 수직성을 향해서 집약적, 유기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일부 방식에서는 샤르트르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간감은 고전적인 수평비례에 머물렀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 구조 내용이 잘 나타난 부분은, 플라잉 버트레스와 네이브 월. 네이브 월은 3단구성. 여기도 갤러리 대신 트리포리엄이 대체하면서 3단구성을 이루고요. 제일 발전한 부분은 플라잉 버트레스.

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이 부분이 벤딩 모멘트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인장력과 압축력이 딱 모이면서 이 부분이 취약점이 되는데. 이 부재를 부르주에서는 T자형 부재로 보강을 했어요. 샤르트르에서는 그대로 일자형 부재로 남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관건인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부르주에서는 이 부분이 보강이 되면서 플라잉 버트레스가 이 아래에 위치하게 돼. 그리고 경사도 더 급하게 내려갈 수 있게 돼. 조절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그림 738]에 나타나. 플라잉 버트레스의 위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죠. 경사가 급해지면서 버트레스의 높이가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데 [그림 729]를 보면 플라잉 버트레스가 바로 그 꼭대기까지 가서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플라잉 버트레스가 네이브 월 외벽을 받치고 있는 지점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플라잉 버트레스를 보아도 샤르트르보다는 부르주의 것이 훨씬 날렵한 모양이고. 무엇인가 구조적으로 훨씬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저 보강이 컸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된 것을 구조적 발전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풍압. 샤르트르는 일드프랑스, 부르주는 부르고뉴 지방이에요. 일드프랑스가 바람이 더 세요. 그러니까 부르주는 좀 더 조건이 좋은 거지. 보강에다가, 풍압도 적다보니까 플라잉 버트레스가 보다 자유롭게, 아치의 모양도 더 날렵해지고 위치도 아래로 내려고 경사도 급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래서 최대 풍속이 샤르트르는 135km/hr, 부르주는 105km/hr. 풍속이 이러하면 풍압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대. 그래서 부르주의 이런 발전 내용은 경량화에 유리하다는 거야. 부르주의 플라잉 버트레스에 들어간 재료의 양은 샤르트르의 60%에 머물렀다.

이런 것은 샤르트르보다 훨씬 발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르주는 이런 것이 샤르트르처럼 노골적인 수직성에 거대 공간이라는 결과로 모아지지 않고, 아직 수평비례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첨단성과 함께 후진성도 같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분 볼트에 더블 베이예요.

[그림 737과 744]는 6분 볼트에 더블 베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고요. 그 결과 천장부가 높아졌는데, 이것이 천측창에 할당된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로 할당이 되어버렸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그림 715]로 돌아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르주와 샤르트르를 비교해봐. 세 번째는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길어. 그런데 샤르트르는 아래가 짧고 위쪽이 길어.

사람으로 치면 부르주가 다리가 롱다리니까 좋은것처럼 보이는데 고딕성당에서는 반대에요. 높이가 높아진 것이 부르주에서는 아케이드 층에 할당이 된 것이고. 샤르트르에서는 천측창에 할당이 된 거에요.

부르주가 이것을 아케이드 아치에 할당시킨 이유는 네이브가 5랑식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아케이드, 트리포리엄, 천측창. 이게 높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밖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것이 아일이지만 첫 번째 아일. 그런데 여기의 입장에서 이것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또 하나의 네이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일의 3등분. 이것을 여기서 확보를 해주어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3단 구성이 아니라 5단 구성이 된단 얘기인데. 그 장면이 어느 것이냐면 [그림 739]라는 얘기지요. 그죠? 책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잘되어 있어.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잖아.

이 5랑식 구성 자체라, 수평감을 나타내는 방식 중의 하나라는 얘기에요. 샤르트르랑 비교해 보면, 일단 샤르트르는 이것 천측창이 넓어졌고, 부르주는 천측창보다 아케이드가 넓어진 것인데. 외관을 보면 샤르트르는 급격히 떨어져. 그런데 부르주는 완만하게 흘러내리는데 이것도 수평감을 나타내는 또 다른 현상중의 하나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조도를 보면, 두 번째 아일에는 상당히 어둡게 되고. 또 천측창이 작고 높이가 낮고, 아일로 들어오는 빛이 두 번이나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이 어두워요. 샤르트르에 비해서.
그 다음에, 플라잉 버트레스가 중요한 발전이 있어서 상당히 경량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3단이어서 이런 것들은 후진성에 머무른 예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아케이드 층이 높아지면서 코어기둥, 단일기둥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기둥 두께가 증가했죠. 기둥이 굵어지면서 전체적인 수직성은 약화되는 거지요 그죠? 동시에 기둥 간 거리도 샤르트르와 비슷한 6.7m였지만 기둥이 두꺼워지면서 주간거리, 확장된 주간 거리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평 이동, 선형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고전적인, 수평적인 질서 내에 머물고 싶어 하는 현상들이고, 샤르트르에서 추구했던 것들과는 반대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아용에서 랑을 거쳐 부르주로 이어지는 고전적 질서 내에 머무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고딕적 고딕 대 고전적 고딕의 차이를 따로 별도항목으로 뽑아서 설명한 예들이 465페이지부터 나와요. 다른 예들, 르망이나 수아송과 같은 예들도 첨가를 했어요. 르망은 [그림753, 754]보면 알겠지만 구조 발전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물은 아닌데, 가서 보면 건물은 참 예뻐. 다른 성당에서는 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림 750]과 [그림751], 샤르트르와 부르주의 전체 느낌을 보면 물론 사진 앵글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샤르트르가 무언가 하늘을 향하여 치솟은 것에 반하여 부르주는 땅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고딕적 고딕 대 고전적 고딕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죠.

▲ 경량화와 밝은 빛 - 랭스 성당

그 다음에 랭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완성점에 이른 건물이 랭스 성당이죠. 랭스에서 아미앵인데. 천장 높이는 아미앵이 더 높아. 그런데 아미앵에 이르면 후기고딕의 전조라 그럴까 징조라 그럴까.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건축사적으로는 랭스를 완성점으로 쳐요. 천장 높이는 아미앵이 높지만.

그래서 랭스 성당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불일치들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러면서 건물이 본격적으로 높아져요.

첫째, 4분 볼트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기둥거리가 넓어지죠. 4분 볼트의 최종 목표는 4분 볼트이면서 주간 거리가 길어지는 것인데. 샤르트르와 부르주의 6.7m에서 랭스 성당에 오면 8.2m로 주간 거리가 넓어졌고, 이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죠. 그러면서 실내 조도가 향상되는 수직성의 증가.

그 다음에 네이브 월의 분할에서는 3단 구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케이드는 18m로 거의 동일해. 그런데 천측창이 거의 16m까지 높아져요. 아케이드는 오히려 샤르트르보다 좀 낮아졌죠? 그래서 천장높이 대부분을 트리포리엄이 할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직성도 수직성이지만은 조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샤르트르보다 랭스가 훨씬 높아졌는데, 아케이드 높이는 오히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려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진 것이고 이쪽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겠지만, 실제 사람이 서 있다면 아케이드가 중요해. 실제 바닥에 섰을 때의 수직성은 아케이드의 높이가 중요해.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만을 추구했다면 아케이드의 높이를 높였을 텐데 천측창을 높였다는 얘기는 빛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이고.

474페이지를 가보면, 아까 샤르트르를 랑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쿨루스가 들어가면서 창 면적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 랑에 비하면 샤르트르가 발전한 것인데, 샤르트르를 랭스와 비교해서 [그림 758]과 [그림 727]을 비교해 보면, [그림 758]에서 창 면적이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벽체 면적이 더 줄어든 것이지.

오쿨루스를 보더라도, 샤르트르에는 거의 벽체, 벽에다가 구멍을 뚫은, 천공한 수준이라면, 이것이 랭스에 오게 되면 벽에 천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선형 어휘로 골격을 짠 것처럼 바뀌게 돼. 이 얘기는 그만큼 벽체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야. 이런 선형 어휘를 바 트레이서리 bar tracery라고 불러요. 그래서 랭스에서는 바 트레이서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랭스에서 중요한 것은, 472페이지 보면 필리에 캉토네가 샤르트르와 거의 동일한 형태. 일단은 샤르트르에 남아있던 더블 베이의 잔재. 팔각형 코어에 원형 대응, 원형 코어에 팔각형 대응 기둥이라는 이 두 종류의 기둥이 하나로 통일이 돼. [그림 760]이나 [그림759], [그림757]을 보면 한 종류로 통일되어요.

그다음에 플라잉 버트레스에서도 샤르트르의 보강 안한 방식이 아니라 부르주의 보강한 방식을 받아들여서, 샤르트르의 둔탁한 플라잉 버트레스가 아닌 [그림 761]과 같이 날렵한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었다는 얘기이고요.

천장고는 42m로 샤르트르보다 5m 가까이 또 높아졌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이게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확장이 일어나면서.. 거대 공간이 나타났고.

이스트 엔드도 부르주 같이 3단 스텝형 방식이 아니라 외관이 급격히 떨어지는 2단 구성으로 갔고. 그리고 건물의 경량화, 이런 오쿨러스에서의 변화는 경량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경량화를 단순히 경량화로 놔 둔 것이 아니라, 조도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경량화를 끌고 갈 수 있는 발전 내용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랭스는 샤르트르와 부르주를 이해하고 보면, 오히려 간단해. 샤르트르나 부르주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수직성 한가지로 모이면서 고딕 건축이 최절정에 달한 건물이 랭스였다는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